

耘谷 元天錫의 杜詩 수용 양상에 대한 試論*

김 근 태 **

<目次>

I. 서론	3. 淸新의 풍격
II. 耘谷의 杜詩 수용 양상	4. 杜詩의 활용 및 형식상의 수용 양상
1. 시에서의 議論 중시	III. 결론
2. 날카로운 비판 의식의 표출	

<국문 초록>

본고는 耘谷 元天錫의 시세계의 원류가 杜甫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그의 시에 나타나는 杜詩의 수용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외형적인 면에서는 운곡이 두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詩體를 통한 실험정신을 구현하였다는 점과, 律詩의 首聯에서 對偶法을 활용하는 破格을 즐겨 구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시의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산문의 기법인 議論을 시에서 활용 하였는데, 이는 시적 재능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더하여 학문적 역량을 갖추어야 뛰어난 시가 됨을 살펴보았다.

또한 『詩經』의 시정신으로까지 소급되는 두보의 현실비판적 창작정신을 수용하여 여말선초의 정치상과 백성들의 고통 및 애환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시를 통해 운곡 시정신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운곡이 두시의 여러 풍격 가운데 淸新한 풍격의 시풍을 이어받

* 이 논문은 2012년 10월 19일 운곡학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강원대학교 한문교육과 시간강사 / neoktkim@naver.com

아 참신하고 독창적이며 맑은 느낌의 시를 즐겨 썼음을 밝혔다.

운곡은 현존하는 시를 통해 볼 때,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고려시대 3대 시인이라 일컬을 수 있는 바, 향후 그의 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좀 더 부각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元天錫, 杜甫, 議論, 詩經, 清新

I. 서론

耘谷 元天錫은 麗末鮮初라는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충절을 지킨 節義志士로 추송을 받았던 인물임과 동시에 고려 문인들 가운데 李穡과 李奎報 다음으로 많은 1,144수의 한시를 남긴 시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그의 생애와 사상 및 문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물이 출간되었으며,¹⁾ 그동안 진행된 문학 방면의 연구 성과에 대한 반성과 비판 및 연구방향을 제시한 논문이 최근 학계에 보고되기도 하였다.²⁾

문학방면에서 접근한 그간의 연구 성과물은 대체로 운곡의 한시 작품을 내용과 주제별로 분류하여 그의 사상과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만으로도 운곡의 시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틀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운곡의 詩論과 창작정신의 원류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형편이다.³⁾ 이러한 현상은 한시 이외에 별도의 산문 작품이 전혀 남

1) 현재까지 8편의 학위논문이 확인되며, 운곡학회에서 발간한 논문모음집(이인재 편, 『耘谷 元天錫 研究(乾)(坤)』, 원주시, 2007.) 이외에도 다수의 논문이 검색된다.

2) 김혈조, 「耘谷 元天錫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東方漢文學』 50집, 2012.

3) 최근 남궁원의 「耘谷 元天錫의 詩 인식 탐구」(『漢文古典研究』 22집, 2011.)

아 있지 않아 그의 詩論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운곡의 시집이 ‘詩史’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과 杜甫와 陶淵明의 한시를 특히 애호하여 그들의 시집을 읽고 난 후 느낀 생각을 시로 엮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것을 단초로 운곡 시세계의 원류가 두보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두보의 시정신 및 창작 태도 등 杜詩를 수용한 양상을 그의 시작품을 통하여 역으로 추론해 보기로 한다.

본고에서 인용한 원문은 문집총간본 『耘谷行錄』을 기본으로 하였고, 번역문은 운곡학회에서 발행한 『국역 운곡시사』(운곡학회, 2008)를 수용하되 몇 군데 수정을 가하였음을 참고로 밝힌다.

II. 耘谷의 杜詩 수용 양상

운곡의 杜詩 수용 양상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 그가 살았던 시기 문인들의 두시에 대한 관심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역대 漢詩史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중국시인은 단연코 杜甫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문인들의 두보 및 두시에 대한 언급은 고려 중기까지 소급되는데, 특히 林椿과 李仁老 등이 활약했던 무신집권기에 이르러서는 杜詩가 한시의 학습과 비평의 典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고려 후기에 이르러 李穡이 詩家의 正宗으로 杜甫를 거론하며 추송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던 바,⁴⁾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여러 신진사대부 문인들에 의해 學杜의 열풍이 유행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특히 조선조

에서 운곡의 시인식과 창작태도에 대한 연구 성과가 보고되었다.

4) 李穡의 <前篇意在興吾道大也 不可必也 至於詩家 亦有正宗 故以少陵終焉 幸無忽>라는 제목과 마지막 연의 “圓齊肯我一句語 只學少陵無取新”에서 확인할 수 있다. 『牧隱藁』 21권.

에 들어와 世宗과 成宗 등 군주의 적극적인 지원과 장려 아래 두시의 언해본이 몇 차례에 걸쳐 출간되기도 하였으며,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두보는 詩聖으로 숭앙받는 존재였다.⁵⁾

고려말 문인들의 두시에 대한 애호열풍에 따라 운곡도 자연스럽게 두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두시를 항상 가까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젊은 시기에 쓴 시에서 “멀리 두보가 긴 한숨 쉰 것을 생각하다가, 또 한유가 세상에 미움 받음을 이해하기도 하네.(緬懷杜叟興長歎, 且解韓公世所憎)”⁶⁾라고 읊기도 하였거니와, 아래의 시에서는 그의 시에 대한 기본관념을 엿볼 수 있다.

我亦平生大瘦生	나 또한 평생토록 매우 수척한 인생이라
欲題詩句意難明	시구를 쓰고자 하나 뜻이 명확하기 어렵다네.
強將俚語賡清韻	억지로 속된 말 가져다가 맑은 운에 화답하지만
不是成章達寸情	문장을 이뤄도 자그마한 정도 표현하지 못하였네. ⁷⁾

첫 구에서 보이는 ‘瘦生’은 비쩍 마르고 수척한 모습을 형용한 것인데, 李白이 飯顛山에서 杜甫를 만나 지은 시인 <戲贈杜甫>에, “반과산 앞에서 두보를 만나니, 머리엔 빙거지 쓰고 해는 한낮이로구나. 묻노니 어찌 그렇게 크게 야위었는가? 예전부터 시 짓기 괴로워서 그리 된 게지. (飯顛山前逢杜甫, 頭戴笠子日亭午. 借問爲何太瘦生, 爲被從前作詩苦)” 라는 구절에서 나온 말이다. 이백은 두보가 시를 짓는데 너무 고심하여 마른 것을 ‘瘦生’이라 표현하였는데, 운곡은 위의 시에서 ‘亦’이라는 시어를 통해 자신도 시를 지을 때 두보와 같이 매우 고심하는 진지한 창작 자세를 견지하였음을 토로한 것이다.⁸⁾

5) 고려시대 문인들의 두보에 대한 관심과 수용 양상은 정선모의 「高麗詩壇에 있어서의 杜詩受容 양상 고찰 - 林椿의 杜詩評價를 중심으로 -」(『漢文學報』 12호, 2005.) 참조.

6) <秋雨>의 함련, 『耘谷行錄』 3卷.

7) <次金教授口號詩韻> 6수의 다섯 번째 작품. 『耘谷行錄』 5卷.

杜陵野老不庸流	두릉의 촌 늙은이 용렬한 재주가 아닌데도
自是無營地轉幽	스스로 하는 일 없어 거처가 더욱 외지다고 했지.
飜覆直嗟雲雨手	구름과 비처럼 쉽게 바뀌는 세상사를 직설적으로 읊었고
往來嘗歎雪霜頭	오고 가느라 눈과 서리처럼 센 머리 일찍이 탄식하였다네.
一時才藻元無比	그의 재주는 한 시대 견줄 이 없었고
千古聲華尙未收	그의 명성은 천고에 아직 남아 있는데
耘谷鄙夫還獨笑	우스워라 이 비루한 운곡 사나이는
荒唐嘯詠不能休	황당하게도 읊조리면서 그칠 줄 모르네.) ⁹⁾

위의 작품은 두보의 시집을 읽고 난 느낌을 적은 것이다. 『운곡행록』이 지어진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의 시는 운곡이 노년에 접어들어서도 두시를 애호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위의 시의 두 번째 구절은 두보가 노년기에 외진 곳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신세를 읊은 <屏跡>의 首聯인 “느지막히 일어나도 집엔 별일 없는데, 하는 일 없어 거처는 더욱 그윽하구나.(晚起家何事, 無營地轉幽)”를 그대로 차용하여 재주는 뛰어나지만 세상에 쓰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두보와 동일시하였다. 頷聯에서는 전쟁을 피해 전국을 떠돌아 다녔던 두보의 생애와 쉽게 변해버리는 人情을 읊은 <貧交行>의 “손 뒤집어 구름 만들고 손 얹어 비 만드니, 분분하고 경박함을 어찌 다 셀 것 있으랴!(飜手作雲覆手雨, 紛紛輕薄何須數)”라는 구절을 점화하여 두보의 불우했던 생애와 현실비판적인 시세계를 먼저 언급하였다. 頸聯에서는 두보의 재주와 절조가 매우 뛰어나 후대에까지 그 명성이 전해지고 있음을 찬양하였고, 尾聯에서는 두보만큼의 재주도 없으면서 두보의 시를 계속하여 보고 있는 자신에 대한 겸양과 자조로 마무리 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두시를 배우고 읊었던 운곡이 그의

8) <再用韻擬古>(『耘谷行錄』4卷)의 미련에서 “두어 편 시를 겨우 짓고 나니, 내버린 원고뭉치가 언덕을 이루었네.(數篇纔寫出 遺稿堆成丘)”라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9) <讀杜集>, 『耘谷行錄』5卷.

시 작품에서 두시를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詩에서의 議論 중시

한문학에서 사용되는 議論이라는 단어는 劉勰의 『文心雕龍』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먼저 유희의 논리를 통하여 議論의 의미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 議란 말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다.(議者宜言)
- 폭넓게 물어서 일을 계획하는 것을 가리켜 議라고 한다 ... 그러므로 議의 요체는 經典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이전 시대의 고사들을 채용하되 현재에 이루어진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周爰諮謀 是謂爲議 ... 故其大體所資 必樞紐經典 採故實於前代 觀通變於當今)
- 經을 述하고 理를 敍하는 것을 論이라 한다.(述經敍理曰論)
- 論의 다양한 체계를 검토해보면 ... 각종 이론을 찾는 수단이며 각종 사리를 평가하는 저울인 것이다.(原夫論之爲體 ... 乃百慮之筌蹄 萬事之權衡也)¹⁰⁾

위에서 유희가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議論은 유교경전 등 옛 전적을 토대로 자신의 이론을 세우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해나가는 방법으로, 원래 散文의 작법에서 중시하는 용어이다. 이것이 시에 적용되면 用事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 시가 마치 산문처럼 느껴지게 된다. ‘以議論爲詩’라는 용어도 있듯이 시에서 議論을 내세우기 좋아하는 것은 宋詩의 특징이며, 특히 黃庭堅을 위시한 江西詩派 시인들의 시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¹¹⁾ 강서시파가 두보를 가장 잘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두보도 의식

10) 劉勰 著, 崔東浩 譯, 『文心雕龍』, 민음사, 1994.
 11) “唐人喜述光景 故其詩多影描, 宋人喜立議論 故其詩多鋪陳” 申景濬, <詩則>, 『旅菴遺稿』 8권.
 “唐人以詩爲詩, 宋人以文爲詩. 唐詩主于達性情, 故于三百篇近, 宋詩主于議論, 故于三百篇遠.” 吳喬, 『圍爐詩話』(郭紹虞 編撰, 『清詩話續編』, 上海古籍出版

하지는 않았겠지만 시에서 議論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¹²⁾ 위의 주석에서 전종서도 언급하였듯이 한시의 절정기라 할 수 있는 唐나라의 수많은 시인들 가운데 杜甫와 韓愈 정도만이 議論을 지닌 시를 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많은 시인들은 시를 짓는 능력은 뛰어났을지 몰라도 학문에 대한 깊은 학식이 없기에 그 경지에 올라설 수 없었고, 더 나아가 한유는 학식의 축적은 있었지만 산문에 특장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의 시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본 반면에 두보는 학문의 축적에 더하여 시적 능력까지 탁월하였기에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받은 것이다.¹³⁾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인의 시적 재능에 더하여 학문적 역량까지 갖춘 상태라야 議論을 바탕으로 시를 쓸 수 있다. 운곡은 동시대인에 의해 ‘程朱와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거니와,¹⁴⁾ 고려말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儒佛道 三教를 아우르는 뛰어난 학자로 평가받기에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以議論爲詩’는 ‘以文爲詩’, ‘以才學爲詩’ 등으로도 불려지는 바, 시를 지음에 있어 리듬감을 살리고 이미지를 중시하는 등 외양의 아름다움을 추구함과 동시에 시에서의 함축적 표현을 강조하는 시풍을 비판한다. 또한 의론을 중시하는 시인들은 작법에 있어 형식적 구속을 따라 사용하기 꺼려했던 허사와 주어를 적극적으로 시에서 활용하여 구절의 애매 모호함을 줄이고 논리의 정연함과 분명한 표현을 통하여 주제를 직설적

社, 1983)

- 12) 두보의 시에서도 議論을 중시하였음은 錢鍾書의 아래의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昌黎乃宋詩之祖 與杜蘇并樹千古 議論爲詩 杜甫最多 李杜皆以文爲詩” 錢鍾書, 『談藝錄』(中華書局, 1999), p. 179.
- 13) 議論에 대한 개념과 중국 역대 시인들의 議論에 대한 입장에 관해서는 줄고, 「西坡 柳僖의 詩文學 研究」(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10)에서 거론한 바 있다.
- 14) <次山人角之詩韻>이라는 시에 “보내준 시에 ‘정주와 고삐를 나란히 하다’라는 구절이 있었기에 읊는다.(來詩有程朱并轡之語故云)” 라는 주석이 보인다.

으로 드러냄을 강조한다.

운곡의 한시 가운데 이와 같은 의식을 바탕으로 쓰여진 몇 작품을 들어보기로 한다.

十行寬教下綿區	열 줄의 너그러운 교지가 온 나라에 내리니
四海民同萬歲呼	온 백성들 같은 소리로 만세를 부르네.
立孝正名遵古典	효를 세우고 명분을 바로잡아 옛 법을 따르게 하시고
敬親尊祖守丕圖	아버이 공경하고 조상을 높혀 큰 뜻을 지키게 하셨네.
慎終追遠誠心切	신중추원하는데 정성스런 마음 간절히 하셨으며
赦過推仁德義俱	사과추인하시니 덕과 의를 갖추셨네.
讀罷寸懷多感激	읽기를 마치니 작은 가슴에 감격이 넘쳐
須知景業邁唐虞	위대한 왕업 당우를 능가함을 모름지기 알겠노라. ¹⁵⁾

위의 작품은 국가의 경사를 맞아 임금이 죄를 사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반포한 宥旨를 읽고 느낀 점을 쓴 시이다. 함련과 경련에 보이는 시어는 모두 유교의 경전에서 따온 구절로, 명분을 바르게 한다는 뜻의 ‘正名’과 부모의 장례를 엄숙하게 하고 조상의 제사를 정성스레 올린다는 뜻의 ‘慎終追遠’은 『論語』에서, 조상을 높인다는 ‘尊祖’는 『禮記』에서, 자신의 어진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까지 이르게 한다는 ‘推仁’은 『大學』에서 각각 그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교경전의 구절을 시어로 차용하여 임금의 조서에 대한 격식을 갖추되 공교롭게 대우를 맞춰 식상함을 상쇄시켰다. 또한 마지막 구절의 須知는 산문에서 많이 나오는 구절로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움을 좀 더 진솔하게 표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愚添甯虎有何尤	어리석고 용렬한 영무에게 탓할 게 무엇이랴
伯王知非意轉迺	백옥처럼 그릇됨을 알아야 그 뜻 더욱 굳세지지.
若學周家緘口事	만약 주나라의 함구한 사실을 배웠다면

15) <讀宥旨>, 『耘谷行錄』 4卷.

退之應免貶潮州 한퇴지도 응당 조주에 좌천되지 않았으리.¹⁶⁾

위의 시의 주석에 ‘이 당시 선군께서 억울하게도 용렬한 이들에게 원망과 비방을 당하였다.(時先君謬被庸夫怨謗)’ 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친이 억울한 비방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개한 家兄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

1구에 보이는 甯虎는 甯武子를 의미하는데, 고려 혜종의 휘가 ‘武’이기에 이를 避諱하여 ‘虎’라는 글자를 사용하였다. 甯武子는 춘추시대 衛나라 대부로 현명한 임금인 文公을 섬길 때에는 지혜롭게 처신하여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무도한 임금인 成公을 섬길 적에는 직언을 서슴치 않는 등 어리석게 처신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하였다는 인물이다. 공자는 『論語』에서 그런 영무자의 행동을, “영무자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지혜롭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는 어리석었는데, 그 지혜는 따를 수 있으나 그 어리석음은 따를 수 없다.[甯武子 邦有道則知 邦無道則愚 其知可及也 其愚不可及也]”라고 칭송하였다. 위의 시에서는 운곡의 부친이 어지러운 정국에서 남들은 다 몸을 사리는데 홀로 올바른 말을 하였다가 비방을 당한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2구에 보이는 伯玉은 춘추시대 衛나라 대부인 蘧伯玉을 가리키는데, 그가 나이 50세에 지난 49년 동안의 잘못을 깨달았다[年五十而知四十九年非]는 『淮南子』의 고사에서 차용하여 남들의 비방은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는 것이 낫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3구와 4구는 공자가 일찍이 주나라 太廟에 들어가니 오른쪽 섬돌 앞에 金人이 있었는데, 금인의 입은 세 겹으로 봉해졌고, 금인의 등에는 “옛날에 말을 삼가던 사람이다.[古之慎言人也]”라고 새겨져 있었다는 『孔子家語』의 고사와, 한유가 <佛骨表>를 지어 임금에게 올렸다가 노여움을 사서 변방인 潮州로 좌천되었던 사실을 들어 말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형에게 대

16) <次家兄所示詩韻> 四首의 세 번째 작품, 『耘谷行錄』 1卷.

한 당부의 표현이다. 4구 모두 옛 선인들의 고사를 차용하여 부친의 행실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며 형에게는 말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당부의 뜻을 완곡하게 드러내었다.

幽居何所有	깊숙이 숨어 사는데 무엇이 있겠는가?
好事不如無	좋은 일이라도 없느니만 못하리.
語默誠而已	입을 닫는 것이 참될 뿐이요
行藏命矣夫	나아가고 머무름은 천명일진저.
雲林翹野鶴	구름 덮인 숲에는 들 두루미 높이 나는데
煙壑腐寒儒	안개 낀 골짜기에는 가난한 선비가 썩어가는구나.
忽復驚時節	갑자기 시절이 바뀔에 다시 놀라니
冬暉照座隅	어느새 겨울 햇빛이 자리 모퉁이를 비추네. ¹⁷⁾

위의 시는 虛辭를 구사하여 시인의 생각을 잘 드러낸 작품이다. 수련과 함련에서 ‘何所’, ‘不如’, ‘而已’, ‘矣夫’ 등 매 구절마다 虛辭를 시어로 차용하여 마치 古文을 읽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위의 시에서 시인은 재주는 있지만 산골에서 늙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친구에게 한탄하고 있는데, 크게 할 일도 없고 또한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찌 할 수도 없는 신세를 문장에서 허사가 독자적인 뜻을 지니지 못한 채 사용되는 점과 교묘하게 대응시키고 있는 것이다.

2. 날카로운 비판 의식의 표출

晚唐時期 孟棨가 그의 本事詩에서 “杜甫가 安祿山の 난을 만나 隴蜀 지역을 떠돌며 시에다 이때의 일을 모두 진술하였는데, 본 바를 미루어 숨겨진 것까지 이르러 거의 남김없이 서술하였으니 당시에 이를 일러 詩史라 하였다.”¹⁸⁾ 라고 하여 두보의 시를 詩史로 명명한 이래 宋代를

17) <初冬 示友人>, 『耘谷行錄』 2卷.

18) 孟棨 本事詩 “杜逢祿山之難, 流離隴蜀 畢陳于詩 推見之隱 殆無遺事 故當時

거쳐 明清代에 이르기까지 詩史는 두보의 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두보의 시가 詩史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杜詩는 당시의 政事를 잘 반영하였다.
- 杜詩는 목격한 사물을 가장 사실적으로 기록하였다.
- 杜詩는 典故를 타당하게 사용하였다.
- 杜詩에는 褒貶之意와 春秋筆法이 있다.
- 杜詩에는 年月地理, 本末之類가 있다.¹⁹⁾

위의 견해를 통해 詩史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시 정치, 사회의 사건과 실상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되, 타당한 전고를 사용해야 하며 객관적이면서도 준엄한 자세로 평가를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이러한 시 정신은 ‘윗사람은 풍으로 아랫사람을 교화하고, 아랫사람은 풍으로 윗사람을 비판한다.(上以風化下 下以風刺上)’는 『詩經』의 諷諭 정신을 충실하게 계승한 것이기도 하다.²⁰⁾

운곡의 시문집이 후손들의 손을 거쳐 많은 부분이 삭제되었기에 사실 이러한 의식을 지닌 시는 그다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詩史라는 평가를 받는 두보의 시에서도 이러한 경향의 시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 시에 뛰어난 자료는 세상에서 이백과 두보를 칭한다. 이백의 작품은 재주가 있고 기묘하여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지만 거기서 風雅와 比興을 찾아보면 10분의 1도 없다. 두시에는 가장 많아서 전할 만한 것이 천여수이다. 고금을 꿰

號爲詩史”

19) 김홍중, 「杜甫의 詩史說 小考」, 『人文社會科學研究』 5집,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8.

20) 운곡이 『詩經』의 구절을 시어로 활용한 예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뚝고 격률을 자세히 갖추고 공교함과 뛰어난을 다 한 데 이르러서는 또한 이백을 능가한다. 그러나 그의 <신안리>, <석호리>, <동관리>, <노자관>, <유화문> 같은 작품의 요점을 추려보면 ‘부귀한 집안에는 술과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데, 길에는 얼어 죽은 뼈가 덩굴고 있다.’와 같은 구절이 들어 있는 시는 또한 13~14수에 불과하다. 두보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두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임에랴!²¹⁾

白居易가 쓴 위의 글에서도 나타나듯 두보의 시에서 『詩經』의 諷諭情神에 부합하는 작품은 三吏와 三別을 비롯한 13~14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편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솔하고 사실적으로 현실을 서술하였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운곡이 지은 다수의 詠物詩에서 독자는 微物에 대한 시인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고 知人들과 주고받은 시에서 그리움의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반면에 정치와 사회의 혼란성과 부조리를 읊은 시에서는 그의 준엄한 비판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운곡의 시세계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상세하게 언급이 되었기에 본고에서는 운곡이 위정자와 정치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직접 목도하고 체험한 백성들의 애환과 고통을 시로 묘사한 작품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破屋鳥相呼	무너진 집에는 새들만 지저귀고
民逃吏亦無	백성들 달아나니 아전도 보이지 않네.
每年加弊瘼	해마다 폐해와 병통만 더해지니
何日得歡娛	어느 날에야 즐겁게 지낼 수 있으랴.
田屬權豪宅	땅은 권세가에게 모두 빼앗겼는데
門連暴虐徒	문에는 포악한 무리들 연이어 찾아오네.

21) 白居易, <與元九書>, “又詩之豪者 世稱李杜 李之作 才矣奇矣 人不迨矣 索其風雅比興 十無一焉 杜詩最多 可傳者千餘首 至於貫穿古今 翫縷格律 盡工盡善 又過於李焉 然撮其<新安>, <石壕>, <潼關吏>, <蘆子關>, <花門>之章 殊門酒肉臭 路有凍死骨之句 亦不過十三四 杜尙如此 況不迨杜者乎”

子遺殊可惜 남아있는 사람들만 더욱 가여우니
 辛苦竟何辜 이러한 고통이 누구의 잘못인가?²²⁾

장문의 제목에서 언급했듯이 외지고 척박한 시골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모두 빼앗기고도 과도한 세금 독촉에 시달려 유랑민이 되어 버린 상황을 나그네에게 듣고 쓴 시이다. 제목에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오언 율시를 지어 마을이 쇠망해 가는 실정을 적는다.(予聞其語 作五言八句以著衰亡之實云)’ 라고 하여 농촌의 피폐한 현실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國脈將頽當輔治 나라의 명맥 끊어져 가니 정사를 보필해야 하고
 人綱欲廢要開張 인륜의 기강 무너지려 하니 교화를 펼쳐야 하건만
 君門深鎖九重隔 임금의 문 깊이 잠겨 아홉 겹으로 막혔으니
 無告嗷嗷籲彼蒼 아뢰 곳 없는 백성들이 저 푸른 하늘에 호소하네.²³⁾

제목에 ‘이때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으려는 무리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時田民兼并之徒蜂起)’ 라는 주석이 병기되어 있듯이 위의 시도 권문 세가의 토지 겸병 문제를 고발한 작품이다. 고발에서 더 나아가 구중궁궐에 거처하여 백성들의 참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군주에 대한 비판의식도 함께 드러내었다. 이밖에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촌의 현실과 무당들을 불러 모아 굿을 하고, 스님들을 모아 범회를 개최하는 등 미신에 기대는 당시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苦旱>(행록 2권), 늙은 노파와 기생으로 차출되어 가는 딸의 이별을 목도하고 쓴 <西隣有

22) <十五日 發方山到楊口郡 吏民家戶欹斜倒地 寂無煙火 問諸行路 答曰 此邑乃狼川郡之兼領官也 自古地窄田磽 民物凋殘 比來權勢之家奪有其田土 擾亂其人民 租稅至多 雖容足立錐之地 無有空閑 每當冬月 收租徵斂之輩填門不已 一有不能則高懸手足 加之以杖 剝及肌膚 居民不堪 流移失所 故如斯也 予聞其語 作五言八句 以著衰亡之實云>, 『耘谷行錄』 1卷.

23) <有感 八首>의 첫 번째 작품, 『耘谷行錄』 3卷.

一婆 無他息 惟一女爲娼妓 婆老且病矣 其女乞諸隣而養之 卽爲樂府之所招 逼迫上道 婆失其手足 哭之甚哀 聞其聲而作之>(행록 3권), 명나라의 명을 받들어 의관제도는 바꾸면서도 백성들의 애환은 살피지 못하는 위정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冬至日寓懷>(행록 3권),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비판하는 내용의 <病中記聞>(행록 3권) 등도 모두 사실을 근거로 시인의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前王父子各分離	전왕의 부자가 각각 헤어져
萬里東西天一涯	만리 떨어진 동쪽과 서쪽 하늘가에 있다네.
可使一身爲庶類	몸 하나는 서민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正名千古不遷移	올바른 이름은 천고에 바꾸지 못하리. ²⁴⁾

위의 시는 이성계 일파의 주도하에 공양왕을 새로운 왕으로 등극시키고 이전 왕인 우왕과 창왕이 신돈의 자손이라 하여 강릉과 강화로 각각 유배시킨 역사적 사건을 시로 고발한 작품이다. 전반부에서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였고, 후반부에서는 우왕, 창왕 부자를 폐위시켜 서민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신씨가 아니라 왕씨라는 실제 이름까지는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처분이 올바른 명분을 얻을 수 없다는 냉엄한 평가를 내렸다.²⁵⁾

3. 淸新의 풍격

운곡시의 풍격에 대해서는 선인들이나 연구자들이 언급한 것이 없는데 詩史라는 평가를 받은 것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맑고 깨끗하다’는 느낌이 강하다. 속세를 벗어난 삶의 터전이 자연이었기에 그가 바라본 풍광은 한

24) <聞今月十五日 國家以定昌君立王位 前王父子 以爲辛旽子孫 廢爲庶人> 2수의 첫 번째 작품, 『耘谷行錄』 4卷.

25) 申欽은 『晴窓軟談』에서 위의 시를 예로 들어 耘谷이 董狐같은 直筆이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결같이 맑고 깨끗하여 그의 고고한 인격과 조화를 이룬 것이다. 본고에서는 운곡의 이러한 시풍을 ‘清新’이라는 풍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明나라 문인인 楊慎은 “清이란 유창하고 아름다워濁하고 막힌 것이 아니며, 新이란 독창적이어서 진부한 것이 아니다.”²⁶⁾ 라고 하였다. 양신의 표현을 빌자면 清新의 풍격은 남의 시풍을 답습하지 않는 의경의 독창성과 생동감 있는 언어로 자연의 맑고 그윽한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詩語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드러나는 풍격이다.

두보는 제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풍격의 시를 창작하여 새로운 의경 개척에 지대한 공로를 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두시의 풍격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일반적으로 ‘清新婉約’, ‘蕭淡婉麗’, ‘沈鬱頓挫’, ‘雄渾悲壯’, ‘沈渾富麗’와 같은 용어로 귀결된다. 두보는 동시대 시인들의 시풍을 논하면서 청신함을 자주 칭송하기도 하였거니와,²⁷⁾ 위에서 열거한 여러 풍격 가운데 清新함과 雄渾함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운곡의 시에서도 응혼함과 비장함을 드러낸 작품이 보이는데 아래에 두 수를 대표적으로 들어본다.

策馬行穿竹嶺雲	말을 몰아 죽령 구름 뚫으니
行裝彷彿接天門	행장이 마치 하늘 문에 닿은 듯하네.
高低遠近山無盡	높고 낮으며 멀고 가까운 끝없는 산들
南北東西路自分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길 절로 갈렸네.
處處封疆平布列	곳곳마다 땅이 있어 평평하게 펼쳐졌는데
重重洞壑互馳奔	겹치고 겹친 골짜기 서로 바빠 달리네.
停鞭四顧乾坤豁	채찍 멈추고 사방 돌아보니 하늘과 땅 넓은데

26) 정요일 외, 『고전비평용어연구』, 태학사, 1998, p.329.

27) 이백에 대해서는 “清新하기는 庾信과 같고, 俊逸함은 鮑照와 같다.(清新庾開府 俊逸鮑參軍)”라고 하였고, 孟浩然에 대해서는 “청신한 시구절마다 전하는데 다함이 없다.(清詩句句盡堪傳)”라고 하였으며, 嚴武에 대해서도 “시가 청신하고 뜻을 세움에 새롭다.(詩清立意新)”라고 하였고, 高適에 대해서는 “清新한 詩가 오래 처박혔음을 몰랐다.(不意清詩久零落)”라고 하였다.

眼界微茫入暮痕 눈앞 아득하게 저녁그림자 다가오네.²⁸⁾

위의 시는 竹嶺에 올라 바라본 풍광을 읊은 것으로 응혼한 미감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수련에서는 죽령이 매우 높은 고개임을 묘사하였고, 함련과 경련에서는 죽령에서 바라본 풍광을 그려내었다. 먼저 함련에서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산들의 모습과 사방으로 뚫린 길들의 모습을 형상화 하였는데, 산의 수직적 심상과 길의 수평적 심상이 함께 어우러져 더욱 웅장한 미감을 느끼게 한다. 경련도 마찬가지로 널리 펼쳐져 있는 들판과 내달리듯 이어져 있는 골짜기를 형상화하면서 들판의 고요한 정적인 심상과 골짜기의 박진감있는 동적인 심상을 함께 배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海東聲價動中原	해동의 명성이 중원을 뒤흔드는데
帷幄軍籌簡不煩	군막에서의 군사작전 간단하고 번거롭지 않다네.
忠壯心懷輕海岳	충성스럽고 장한 마음 산과 바다보다 무겁고
生成德業大乾坤	이룩하신 덕과 업적은 하늘땅처럼 커다랗다.
三韓柱石功彌重	삼한의 기둥과 주춧돌 되시니 공적은 더욱 무겁고
六道雲霓望益尊	육도의 백성들 갈망함은 바라볼수록 더욱 높구나.
天爲我邦扶社稷	하늘이 이 나라 사직을 유지시키게 하려면
願令公壽等崑崙	공의 수명 곤륜산처럼 길게 해 주시기를. ²⁹⁾

위의 시는 고려말 대표적인 문신과 무신인 이색과 최영을 칭송하는 시 가운데 최영에 관한 부분이다. 海岳, 乾坤 등 기세 높은 시어를 구사하여 최영 장군의 업적과 굳은 충성심을 칭송하였으며, 미련에서는 과장법을 이용하여 곤륜산처럼 오래도록 살아 고려를 지켜 줄 것을 바라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어 비장한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러나 운곡의 시에서 위와 같은 미감을 지닌 시는 그리 많지 않다.

28) <竹嶺>, 『耘谷行錄』 1卷.

29) <海東二賢讚, 前冢宰六道都統使崔瑩>, 『耘谷行錄』 2卷.

운곡은 “따뜻한 바람은 살랑살랑 날씨는 맑고 깨끗한데, 집집마다 문 위에 쭉 사람을 걸어놓았네.(熏風微軟氣清新, 萬戶千門掛艾人)”³⁰⁾, “사심이 없는 천지의 봄이라, 바람과 햇빛은 더욱 맑고 깨끗하네.(無私天地春, 風日更清新)”³¹⁾와 같이 직접적으로 清新이란 시어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清晨, 清狂, 清風, 清流, 清遊, 清幽, 清思, 清淚, 清溪, 清香, 清閑, 清輝, 清虛 등 맑은 느낌을 지니는 시어를 자주 구사하여 자신의 맑고 깨끗한 심상을 즐겨 드러내었다.³²⁾ 이러한 풍격의 시는 운곡이 두보 이외에 陶淵明의 시를 애호하였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滿城佳致一何新	성에 가득한 아름다운 경치 어찌 그리도 산뜻한지
草綠花紅各自春	풀은 푸르고 꽃은 붉어 저마다 봄일세.
吟罷竹溪溪上月	죽계 밝은 달빛에 시 읊으며 즐기노라니
灑然方寸絕纖塵	깨끗이 씻긴 마음 티끌 한 점 없네. ³³⁾

위의 시는 경상도 순흥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쓴 시이다. 1구와 2구에서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봄날의 풍광을 묘사하면서 ‘新’이라는 시어를 통해 산뜻함을 드러내었다. 3구와 4구에서는 봄의 풍광을 즐기는 시인의 마음을 읊었는데, 속세의 속된 티끌을 ‘纖塵’이라고 표현한 것이 뛰어나다. 3구에서 자연스럽게 순수한 달을 강조하기 위해 인위적이고 작위적이라는 뜻을 지닌 ‘織’을 ‘塵’과 연결시켰는데 이러한 표현은 운곡이 독창적으로 창출한 시어이다.

積雨霽林壑	장마 비 그친 골짜기 숲
-------	---------------

30) <端午>의 1, 2구, 『耘谷行錄』 2卷.

31) <春郊閑步>의 수련, 『耘谷行錄』 4卷.

32) <擬古>(『耘谷行錄』 5卷)의 마지막 연에서는 “때때로 바람과 달을 즐기면서, 글쓰기를 마치니 맑은 시가 새롭네.(時時弄風月, 脫稿清詩新)”라고 하여 淸詩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33) <宿順興府>, 『耘谷行錄』 1卷.

嫩涼生樹陰	나무 그늘에 시원한 기운 생기네.
山雲披絮帽	산 구름은 솜털 모자를 벗어 버리고
澗水鼓瑤琴	시냇물은 거문고 연주하네.
紅瀉江邊照	붉은 색은 강가의 석양으로 쏟아지고
碧高天外峯	푸른 빛은 하늘 밖 산봉우리위로 높구나.
杖藜苔逕淨	깨끗한 이끼 길 청려장 짙고
聊以滌塵襟	속세의 마음 씻어버리네. ³⁴⁾

위의 시는 오후 늦게 비가 그치고 난 뒤의 싱그러움을 묘사한 시이다. 수련에서는 비가 막 그친 후의 산뜻함을 묘사하였는데 對杖을 활용하여 기이한 미감을 느끼게 하였다. 함련과 경련은 날씨가 갠 후의 풍광을 잘 표현한 명구이다. 먼저 함련에서는 먹구름이 걷히고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검은 색과 흰 색의 대비를 통해 형용하였고,³⁵⁾ 빗소리에 들리지 않았던 냇물 소리가 비가 그치자 들리게 되는 과정을 거문고 소리에 비유하여 정겨우면서도 산뜻한 미감을 창출하였다. 색채의 대비를 통한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함께 사용하여 생동감있게 묘사한 것이다. 경련은 강가에 어리는 석양과 비온 뒤 푸른 산의 산뜻한 빛깔을 묘사하면서 ‘紅’과 ‘碧’을 주체로 설정한 章法이 뛰어나다.

4. 杜詩의 활용 및 형식상의 수용 양상

본 절에서는 운곡이 杜詩의 구법과 장법을 어떻게 수용하고 응용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두시에 정통하지 못한 관계로 심도있는 연구는 불가능하기에 외형상으로 보이는 몇몇 사례만 제시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게 됨을 먼저 고백한다.

운곡의 시에 있어 형식적인 면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詩體

34) <晚晴>, 『耘谷行錄』 2卷.

35) 이 구절은 蘇軾의 <新城道中> 함련의 “嶺上晴雲披絮帽 樹頭初日掛銅鉦”을 모방한 것이다.

를 즐겨 구사하였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운곡의 시적 재능이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일례가 되기도 하면서 두보의 실험정신을 본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본고에서는 범위를 좁혀 그의 律詩에 나타나는 형식상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운곡의 율시에 있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대우법의 활용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경련과 함련에서 대장법을 사용함은 율시의 격식에 있어 당연한 것인데 이를 넘어 수련과 미련에도 대장법을 구사하였다. 고시와 달리 율시의 수련이나 미련에서 대장법을 활용하는 것은 너무 정교함을 추구하다 기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예로부터 시인들이 꺼리던 구법이다. 그러나 율시에 있어서 기존 규율의 완성자라 평가받는 두보가 이러한 구법을 즐겨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보아,³⁶⁾ 전체적인 시상 전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좋은 시로 평가받을 수 있기도 하였다. 특히 강서시파 시인들이 두보의 이 구법을 많이 활용하였고, 우리나라에서 두보를 가장 잘 배웠다고 평가받는 盧守愼도 이러한 구법을 즐겨 사용하였다.³⁷⁾

운곡이 율시의 수련에서 대장을 활용한 예는 50회가 넘을 정도로 빈번하다. 그런데 율시의 수련에서 대장을 활용한 예는 운곡의 노년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초기에는 이러한 구법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 자주 구사하지 않다가 후기로 올수록 익숙해져 그 빈도가 늘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가운데 몇 가지 경우만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皎皎雲間月 희디흰 구름 사이의 달

36) 두보의 칠언율시 151수의 수미 양 연 302개 가운데 70연에 대장을 사용하여 평균 네 수에 한 수는 대장연이 아닌 수련이나 미련에도 대장을 썼다. (김준연, 『당대 칠언율시 연구』, 역락, 2004, p.231. 참조)

37) 두보의 영향을 받아 율시의 수련에서 대우법을 활용하는 작법에 대해서는 줄고, 「西陂 柳僖의 江西詩派 수용 양상에 대하여」(『한문고전연구』 20집, 2010.)에서 살펴보았다.

蒼蒼雪裏松 푸르고 푸른 눈 속의 소나무.³⁸⁾

- ㉠ 玉塞三春路 봄날 옥새로 가는 길
銀河九月程 구월 하늘에서 돌아오는 여정.³⁹⁾

먼저 ㉠은 구름 사이로 비친 달빛의 깨끗함과 눈 속에 서 있는 소나무의 푸름을 강조하기 위해 대장을 활용한 예이다. 이 시가 挽詞라는 점을 감안할 때 亡者의 고결한 인품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인 것이다.

㉡은 기러기가 날아가는 가을밤 정취를 묘사한 시의 수련인데 대장의 공교로움이 뛰어난 예이다. 玉과 銀, 塞와 河, 三春과 九月, 路와 程으로 모든 시어를 공교롭게 대우를 맞추면서 봄날이 되면 북쪽으로 날아가고 가을이 되면 날아오는 기러기의 습성을 서술하였다. 여기서 2구는 시인이 직접 바라본 實景인데 하늘 높이 날아가는 기러기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하기 위해 銀河와 玉塞라는 시어를 사용한 것이다.

다음으로 운곡이 杜詩의 詩句를 차용하여 시어로 활용한 예를 살펴본다.

앞에서 인용한 “두보 늙은이 용렬한 재주가 아닌데도, 스스로 하는 일 없어 거처 더욱 외지다고 했지.(杜陵野老不庸流 自是無營地轉幽)”는 두보의 <屏跡>의 시구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이며, “술 속에 살아가던 여덟 신선도, 죽어서는 그 뼈가 티끌이 되었네.(飲中八仙子 骨化爲塵埃)”⁴⁰⁾는 두보가 술을 좋아하던 여덟 사람을 읊은 <飲中八仙歌>라는 시의 제목을 그대로 차용한 예이며, “저녁 맑기를 기다려 시 한 수 지으려고, 갓 거꾸로 쓰고 두보를 흉내내네.(欲待晚晴書一賦, 倒冠嘗效杜陵人)”⁴¹⁾는 두보가 궁궐에서 관직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살던 생활을 회상하며 지은

38) <判書鄭乙產妻辛郡君挽詞> 4수의 세 번째 작품의 수련, 『耘谷行錄』 3卷.

39) <聞雁>의 수련, 『耘谷行錄』 5卷.

40) <九月五日 與客小酌>, 『耘谷行錄』 2권.

41) <復用晨興詩韻> 3수의 마지막 작품의 미련, 『耘谷行錄』 5卷.

시인 <至日遣興>의 “조용하게 모시고 담소할 여유가 없었고, 때때로 너무 급하여 옷을 거꾸로 입기도 하였네.(無路從容陪語笑, 有時顛倒著衣裳)”라는 구절을 본떠 자신의 급한 마음을 잘 표현한 예이다.

다음으로 두시의 구절을 활용한 예를 살펴보면, “구름과 비처럼 쉽게 바뀌는 세상사를 직설적으로 읊었고, 오고 가느라 눈과 서리처럼 샌 머리 일찍이 탄식하였다네.(翻覆直嗟雲雨手 往來嘗歎雪霜頭)”와 “우습구나 구름을 뒤치고 또 비를 얹지르니까, 무심하도다 뜨거움을 경계하면서 다시 불꽃에 덤벼드네.(却笑翻雲并覆雨 無心附熱又趨炎)”⁴²⁾, “요즘 사람들 도리어 우스우니, 구름과 비처럼 얹치락뒤치락함이 하도 많으니.(比來人事還堪笑 翻覆無常多雨雲)⁴³⁾는 두보의 <貧交行>의 “손 뒤집어 구름 만들고 손 얹어 비 만드니, 분분하고 경박함을 어찌 다 셀 것 있으랴!(翻手作雲覆手雨, 紛紛輕薄何須數)”와 <去矣行>의 “어찌 능히 큰 마루위의 제비가 되어, 진흙을 입에 물고 더운 열기에 붙어 있을까?(焉能作堂上燕 銜泥附炎熱)”의 시어를 활용한 예이며, “토끼굴과 여우 언덕이 어찌 그리 군박한가, 봉새와 고니의 길에도 부침이 있으리.(兔窟狐邱何窘迫 鵬程鵠路有浮沈)”⁴⁴⁾와 “육조의 일을 머리 들고 바라보니, 쓸쓸한 연기에 쌓인 여우와 토끼 언덕이라네.(回首六朝事 荒煙狐兔丘)”⁴⁵⁾는 두보의 <憶昔>의 “낙양의 궁전은 불타서 없어졌고, 종묘에선 새로 여우굴, 토끼 굴을 제거하네.(洛陽宮殿燒焚盡 宗廟新除狐兔穴)”라는 구절에서 따온 말이다. “늙어갈수록 느낌이 많고 병도 많으니, 나가거나 물러나거나 모두가 운명임을 믿겠노라.(老來多感仍多病 信矣行藏命矣夫)”⁴⁶⁾와 “늙어가며 병까지 많아, 쇠한 것이 이미 심하구나.(老去仍多病 衰遲已甚哉)”⁴⁷⁾는 두보의 <水宿遣興奉呈羣公>의 “노둔한데다 병까지 많으니, 만

42) <自詠> 첫 번째 작품의 경련, 『耘谷行錄』 3권.

43) <久雨獨坐鄉學 書五絕以示諸生> 5수의 네 번째 작품, 『耘谷行錄』 4권.

44) <苦寒夜吟> 2수 첫 번째 작품의 합련, 『耘谷行錄』 4권.

45) <題元伊川所示詩卷後>의 미련, 『耘谷行錄』 4권.

46) <卽事>의 마지막 연, 『耘谷行錄』 3권.

나고 맞이함이 멀어 더욱 헛갈리네.(魯鈍仍多病 逢迎遠復迷)”에서 따온 표현이다. “귀밑머리는 근심이 많아 완전히 눈과 같이 되었고, 마음은 병이 오래되어 이미 재처럼 식었다.(鬢爲愁多渾似雪 心因病久已如灰)”⁴⁸⁾는 두보의 <春望>의 “흰 머리 굵을수록 더욱 짧아져, 완전히 비녀도 꽂을 수 없구나.(白頭搔更短 渾欲不勝簪)”를 접화한 경우이며, “눈 녹고 얼음 풀려 시냇물 넘치니, 산중에 사는 모든 일 한가로운 줄 알겠노라.(雪消水釋漲溪流, 方覺山居事事幽)”⁴⁹⁾는 두보의 <江村>의 “푸른 강 한 구비 마을을 안고 도는데, 긴 여름 강 마을엔 일마다 한가롭다.(淸江一曲抱村流 長夏江村事事幽)”에서, “만사가 뜬 구름이라 부질없는데, 이 자그마한 몸뚱이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랴.(萬事依依總是浮 一微軀外更何求)”⁵⁰⁾는 역시 두보의 <江村>의 “병이 많아 필요한 것은 오직 약물뿐이니, 자그마한 몸뚱이 이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랴.(多病所須惟藥物 微軀此外更何求)”에서 따온 구절이다. “누가 알 건가 뱀새가 사는 덩불 속, 가지하나 그 천지에 또 가을바람이 부는 것을.(誰記鷓鴣草莽中 一枝天地又秋風)”⁵¹⁾는 두보의 <唐堯真自聖>의 “옛날 원추리 향렬에게 보답하고자, 뱀새가 가지 하나에 앉아 있네.(爲報鷓鴣行舊 鷓鴣在一枝)”에서 따온 말이며, “닭과 벌레를 얻고 잃음을 어느 때에야 다 하려나, 하늘 끝을 바라보니 어느새 석양일세.(鷄蟲得失何時了 注目天涯已夕陽)”⁵²⁾은 두보의 <縛雞行>의 “닭과 벌레의 득실은 끝날 때가 없으리, 찬 강물 굽어보며 산각에 기대있노라.(雞蟲得失無了時 注目寒江倚山閣)”에서 따온 표현이다.

47) <張先生德至 惠治病露液一罍 詩以謝之>의 수련, 『稔谷行錄』 5권.

48) <雨中卽事>의 경련, 『稔谷行錄』 3권.

49) <卽事>의 수련, 『稔谷行錄』 5권.

50) <嘆世>의 중간부분, 『稔谷行錄』 5권.

51) <次諸生秋日詩韻> 4수의 두 번째 작품의 수련, 『稔谷行錄』 5권.

52) <有感>의 마지막 연, 『稔谷行錄』 3권.

Ⅲ. 결론

본고에서는 운곡 시세계의 원류가 두보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그의 시에 나타나는 두시의 수용양상을 기법과 주제의식, 풍격, 형식상의 면에서 살펴보았다. 두보가 고시를 비롯하여 율시에 있어서도 집대성자로 일컬어질 만큼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운곡의 시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적인 면만을 거론하였다.

먼저 외형적인 면에서는 운곡이 두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詩體를 통한 실험정신을 엿볼 수 있으며, 율시의 수련에서 대장법을 활용하는 파격을 즐겨 구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두시의 시어를 차용하여 자신의 시어로 점화한 경우가 많았음을 살펴보았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시의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산문의 기법인 議論을 시에서 활용 하였는데, 이는 시적 재능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더하여 학문적 역량을 갖추어야 뛰어난 시가 됨을 살펴 보았다.

또한 『詩經』의 시정신으로까지 소급되는 두보의 현실비판적 창작정신을 수용하여 여말선초의 정치상과 백성들의 고통 및 애환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시를 통해 운곡 시정신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운곡이 두시의 여러 풍격 가운데 淸新한 풍격의 시풍을 이어받아 참신하고 독창적이며 맑은 느낌의 시를 즐겨 썼음을 밝혔다.

필자가 두시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기에 본고는 두시의 수용양상을 피상적으로 살필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며,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운곡의 詩論을 유추할 수 있는 산문 작품이 전무한 상황이라 試論으로서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앞으로 杜詩의 章法과 句法을 수용한 양상과 여말선초 다른 시인들과의 비교를 거쳐야 시인으로서의 운곡의 면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음을 기약한다.

<參考 文獻>

- 元天錫, 『耘谷行錄』, 한국문집총간 6권, 한국고전번역원.
최승순, 원영환, 최상익, 허준구 교열·감수, 『국역 운곡시사』, 운곡학회, 2008.
申景濬, 『旅菴遺稿』 한국문집총간 231권, 한국고전번역원.
申 欽, 「晴窓軟談」, 『象村稿』, 한국문집총간 71~72권, 한국고전번역원.
李 穡, 『牧隱藁』, 한국문집총간 3~5권, 한국고전번역원.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 上海古籍出版社, 2003.
郭紹虞 編撰, 『清詩話續編』, 上海古籍出版社, 1983.
劉勰 著, 崔東浩 譯, 『文心雕龍』, 민음사, 1994.
- 김준연, 『당대 칠언율시 연구』, 역락, 2004.
이인재 편, 『耘谷 元天錫 研究(乾)(坤)』, 원주시, 2007.
정요일 외, 『고전비평용어연구』, 태학사, 1998.
錢鍾書, 『談藝錄』, 中華書局, 1999.
김근태, 「西陲 柳僖의 詩文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10.
김근태, 「西陲 柳僖의 江西詩派 수용 양상에 대하여」, 『漢文古典研究』 20집, 2010.
김철조, 「耘谷 元天錫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東方漢文學』 50집, 2012.
김홍중, 「杜甫의 詩史說 小考」, 『人文社會科學研究』 5집, 1998.
남궁원, 「耘谷 元天錫의 詩 인식 탐구」, 『漢文古典研究』 22집, 2011.
정선모, 「高麗詩壇에 있어서의 杜詩受容 양상 고찰」, 『漢文學報』 12호, 2005.
- 柳振漢, 『晚華集』, 清節書院, 1989.
李養吾, 「謝氏南征記後序」,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 아세아문화사, 1994.

- 김동욱, 『증보 춘향전연구』, 연세대출판부, 1976.
- 김석배, 「「만화본 춘향가」 연구」, 『문학과 언어』 12, 문학과언어학회, 1991.
- 류준경, 「「만화본 춘향가」 연구」,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 국문과, 2002.
- 박혜숙, 「한국 한문서사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2집, 한국한문학회, 1998.
- 이금희, 『「사씨남정기」 연구』, 반도출판사, 1991.
- 이래중, 「「사씨남정기」의 주요 이본 고찰」, 『대동한문학』 19, 대동한문학회, 2003.
- 이수봉, 「「劉翰林迎謝夫人告祠堂歌」 試譯」, 『개신어문연구』 6, 충북대학교, 1991.
- 정길수, 「「道康瞽家婦詞」의 형식과 목소리」, 『고시가연구』 26, 한국고시가학회, 2010.
- 정하영, 「「사씨남정기」 한역시 考」, 『연민학지』 1호, 1993.
- 최광현, 「「만화본 춘향가」 연구」, 한림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Abstract

Poetics on the Acceptance Phase of Du-Fu's Poetry in Ungok Won Cheonseok
/ Kim Geun Tai*

This study examines on the Acceptance Phase of Du-Fu's Poetry in Ungok Won Cheonseok with an assumption that the origin of his poetry world resides in Du-Fu.

In external aspect, he materialized an experimental mind by using various forms of poetry as Du-Fu did that, and enjoyed having a great command of exception using antithesis in the first stanza of style of chinese verse.

In the contents, he used argument which is one of the techniques of prose to express clearly theme of poem. This shows that, to write outstanding poems, it must possess academic capability as well as poetic talent.

In addition, this study considers Ungok's poetic ethos through his poems documenting realistically political scenes and sufferings, joys and sorrows of the people in the end of the Koryo Dynasty and early Chosun Dynasty, which accept Du-Fu's creative soul of critical realism relating back to the poetic ethos of the book of odes(詩經).

Finally, it finds out Ungok followed a gusto of new and fresh, or cheongsin(清新) among the Du-Fu's many poetical styles and wrote pleasantly poems feeling some fresh, creative and limpid.

As the existing poems, Ungok is one of the big three poets of the Koryo Dynasty in terms of quantitative, not to mention qualitative, and therefore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into giving greater prominence to his appearance as a poet by a comprehensive survey.

* Lecturer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neoktkim@naver.com

【Key words】 Won Cheonseok(元天錫), Du-Fu(杜甫), Argument(議論), The book of odes(詩經), a gusto of new and fresh(清新)

투고일 : 11월 9일, 심사일 : 11월 30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